

여론

사설

잊어서는 안되는 것

한동안 외대 교육을 장식했던 '음비하는 외대, 세계를 흐르는 외국어'라는 플라카드가 '최우수 국제대학 선정'을 경축하기 위한 대형업체 이치도 교제됐다.

대학당국자들은 국학대 선정을 두고 '제 2의 외대 도약' 이리 부르며 "진짜를 한마디 빙여야 한다"고 말을 한다. 국학대 선정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전국 5위안에 드는 명문 사립대'라 칭찬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학대 선정이 자신감이 겉으로 있는 외대 학생들에게 긍지를 불어놓아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반한 것이다. 전국 사립에는 벅장이 이전년도 등록금을 10%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공간부족에 허락이는 학생들에게 신축하고 있는 이문동과 두 건물은 대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일부후보의 공약 자료들을 보면 캠퍼스 이전에 대한 문제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수업시간과 모교수들이 됐다는 말로 들지만 '국제대학지원단'은 대부분 원산과 외국어대학연구센터에 지원된다. 나머지 또한 이문동의 지역대학원에 투자된다. 원산은 전국 분교중에서 외대가 있는 연세대를 제외한다면 전국 1위의 수준이다. 10년이 지난 후 이문동의 원산이 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국은 굽이굽이 그리고 그만두고... '내 용이다.'

수업시간과 몇몇 교수들은 원산전에 대해 예기고 조금씩은 한다. 있고 있었던 9년 전 풍랑, 1학년은 신화처럼 들리기 시작한 자료들, 당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국학대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있었던 기억을 반추하게 한다.

이것이 국학대 선정을 두고 학생들이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공간부족을 예상하면서 '우선 건물 짓고 보자' 이제는 '국제대학때문에 비쁘니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점차 교수연구동 1층을 임대수입을 위해 상가로 구상하고 있다는 대학당국의 시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서는 것 뿐이다.

주위에 대한 무관심과 학원의 주인翁기를 몽각한 몇년동안 우리 외대는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었다.

동반자로 서는 길

15일 경총과 전경련은 '경쟁력 10%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나 직자에게 계속되는 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즘 대체로 직장인들은 명예퇴직자' 비율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주간지에도 '퇴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퇴직금 활용하는 비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이 임금동결, 강원 등 노동자들이 허리를 풀리면서는 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강원의 경우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다니면서 해고 위험에 위험을 안겨다 줄 소지가 크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죄송스러움을 담담히 전해 자신에서 사직장을 쓰고 있다. 대학 4년, 취업장을 치르고 입사한 회사에서 어느날 어이없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문제는 경제위기 대처될 때마다 함께 나타나는 단이다. 임금동결의 이유는 대부분 경쟁력 강화, 고용분담 등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난 80년대부터 10년동안의 국내기업 비용구조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경기부양과 차지하는 비율은 광고·선전비나 영업비용과 비교할 때 절대로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구조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장국제화의 문턱이라는 OECD에서 기업하고 정부가 노동자를 대안보너도 높은 노동시간과 해고의 불안, 산업체에 등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에 임금동결과 경쟁력이라는 짐이져 앓아왔다는 안을 말하고 있다.

얼마전 외국의 한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경영에 참여하게 한으로써 불평과 경쟁난을 타개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제 짐을 떠밀기고 미워버리는 존재가 아닌 함께 기여할 동반자로 노·사의 관계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축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를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니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충청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외대학보) 제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선거에 동참하자

벌써 우박이 내리고 더 둑려온 옷을 찾게 만든다. 고 3생에게는 갤릴의 시기이고 회민의 시기인 것이다.

대학의 1학년들은 이런 어린 티를 뱉고 성숙한 사회인으로의 한 걸음을 다가는 시기이다. 현대의 캠퍼스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각종 단체의 동문회와 과별 예술회 및 동반인의 밤과 학생회장 선거가 그것이다. 과 회장 선거, 단대장 선거, 총학생회장 선거등 줄을 엮는 선거를 보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묵고 살았지만 너무 얕은 경계를 넘겼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물

는 달리 강경성이 있는 것,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서 악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강경성이 없어지다보니 참여도가 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수준적

인 삶에 걸들여진 학생들은 한동안에 많

은 자유가 주어지고 능동을 강요하게 되다보니 혜아할 일인 학생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다. 학생 하나 하나가 학생회의 주인翁인 것이다. 그런

학생회를 구성하는 선거는 학생회의 주

인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다. 그들이

더 동시에 주인翁으로서의 의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투표율을 보

면 학생들이 권리와 의무를 더하지는 것 같다. 과 단체나 단체마다 권리와 의무를 더하거나 차지하는 것 같다.

난 고등학교 때 '대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난 본명 3월에 1학년을 읽을을 확

인하였고 자주 아니었지만 도서관에

들리면 때때로 책을 빌려온다. 그로부터 8

개월이 흘러 결국 도구와 기아에야의 대명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가

흔히 학생의 3주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보통 학생 교수 직원을 끊는다.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여 한다. 주제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학원이 제 기분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지 공

부만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렇다. 공부

를 하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부란 것이 도서관에 앉아 죽은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부

대끼며 자신의 결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의 자신의 결점을 정하고 인생의 기본

적인 소양을 쌓아나가는 것이 공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개

개의 의견을 모아내는 민주주의가 진정

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학내에서도 마

친구가 있다. 학내 구성원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정한 대표성을 지닌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유경호(상경계열 1)

1권은 없다

1학년에게는 책 읽을 시간이 많다. 나로 말하자면 공감시기이나 여가시간에 해체이나 과제를 읽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책들, 많이 읽는 책들, 재미있다는 책들을 조금씩 읽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1학년이 없다. 요즘 드라마 일정과 함께 드라마를 염두에 있는 학생들은 묵고 살았지만 너무 얕은 경계를 넘겼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물

리도 알고 싶어서는 것,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서 악간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강경성이 없어지다보니 참여도

가 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수준적

인 삶에 걸들여진 학생들은 한동안에 많

은 자유가 주어지고 능동을 강요하게 되다보니 혜아할 일인 학생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다. 학생 하나 하나가 학생회의 주인翁인 것이다. 그런

학생회를 구성하는 선거는 학생회의 주

인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다. 그들이

더 동시에 주인翁으로서의 의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투표율을 보

면 학생들이 권리와 의무를 더하지는 것 같다. 과 단체나 단체마다 권리와

의무를 더하거나 차지하는 것 같다.

난 고등학교 때 '대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난 본명 3월에 1학년을 읽을을 확

인하였고 자주 아니었지만 도서관에

들리면 때때로 책을 빌려온다. 그로부터 8

개월이 흘러 결국 도구와 기아에야의 대명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가

흔히 학생의 3주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보통 학생 교수 직원을 끊는다.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여 한다. 주제가 제 기분을 다

할 때 학원이 제 기분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지 공

부만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렇다. 공부

를 하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부란 것이 도서관에 앉아 죽은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부

대끼며 자신의 결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의 자신의 결점을 정하고 인생의 기본

적인 소양을 쌓아나가는 것이 공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개

개의 의견을 모아내는 민주주의가 진정

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학내에서도 마

친구가 있다. 학내 구성원으로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도서관에 1권에 나를 때까지는 적이도 그려 고 싶지 않다.

조영현(서사법·영교 1)

양당배보다는 조국의 현실을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는 양당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잡지나

신문에서 양당배를 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비극이 생기게 되자, 즉 '나만 빼 놓는 모든 사람들'

이거나 네는 죽어라라는 듯이 말이 된다. 그리고 양당배가

우리나라를 들으려는 이유를 알면 보면

양당배를 피는 것을 자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당배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의해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이유로 양당배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공약분석

선명한 지향, 책임있는 공약 바탕돼야 양측, 학생회 혁신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오는 27(수)·28(목) 압둘에 걸쳐 진행될 서울캠퍼스 31대 총학생회 선거가 20일(수) 1차 예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과정선거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선거시행체계를 풀리듯 논의는 극심한 신경질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총학생회의 계승을 통한 혁신을 표방하고 있는 기회 1번 김강우(상경·무역 4)·김범석(국어·영어 4)조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주시대 주인선언'을 슬로건으로 '학우를 학생회의 주인으로'라는 기본원칙을 선거의 중점에 두고 있다.

7,300 학생회의 주인을 주인답게 만드는

정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생회, 투명성이 보장되는 학생회'에서 찾는다.

공약선거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선거시행체계를 풀리듯 논의는 극심한 신경질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총학생회의 계승을 통한 혁신을 표방하고 있는 기회 1번 김강우(상경·무역 4)·

김범석(국어·영어 4)조는 '내 삶의 주

인은 나, 자주시대 주인선언'을 슬로건으로

'학우를 학생회의 주인으로'라는 기본원칙

을 선거의 중점에 두고 있다.

7,300 학생회의 주인을 주인답게 만드는

'두뇌·독단'을 선거 화두로 제기고 있는 기호 2번은 '특집정보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함한 학생운동권 전반을 겨냥한 말이다'며 지금까지의 학생회가△학우들의 다양성이 소통되지 못하는 구조△사업의 반복·식상△이미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지 못한△부당부평·폐쇄·불평등 등을 이유로 학생회의 변화를 주장한다.

올해 학원자치부 투쟁은 평가원에 있어서 기호 1번은 △문화활동 예산 공개△한동원 출연료 예산△교수원 예산△제2대학 추진△교원연수·유학정보센터 설치 등을 들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총학생회 예산 공개△한동원 출연료 예산△교수원 예산△제2대학 추진△교원연수·유학정보센터 설치 등을 들고 있다.

총학생회 예산공개와 관련 '형식적 결산안이 아니라 계획되는 예산으로 학우들과 함께 예산을 나누겠다'고 말했고, 한동원의 개혁과 관련에서는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해방이 우리시대의 과제인가?'라는 물음만 던졌다. 또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기호 1번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무지개 연합'을 꼽았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2회 총학생회에는 계승과 혁신의 지침을 명시하고 하여 내내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700명의 청년들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돼 역사의 첨조자로 되었으면 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운동·환경운동·인권운동·성평등·

정보통신운동·반전평화·노동 등 7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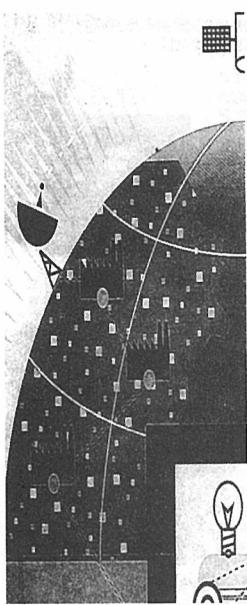
한편, 기호 2번 류종렬(상경·영어 3), 이원복(국어·영어 3)조는 '자유를 향한 역습,

그 끝에는 폭력'이라는 계획이다. 그들은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호 1번은

문화



공동체문화 - PC 통신

통신으로 캠퍼스를 뛰어넘자!

정보교환을 넘어선 양캠퍼스간의 만남

"보통은 뉴스나 잡지 등을 보기 위해 통신을 한다. 이밖에 통신을 통해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나우누리를 사용하고 있는 최일원(II·미아산) 군의 말이다.

요즘 소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불리지는 PC통신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 통신망에서 정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망의 유용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제 본고로 들어와보자.

본고에서는 월 2회기마다 ATM 전산망을

통해 개통함과 동시에 전시실을 마련했다.

이제 몇 가지의 힘을 거치면 학교에서 ID를 부여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쉽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하이 텔, 나우누리, 천리안에는 'HTS'라는 인데 스스로 외대방에 개설돼있다. 따라서 이곳으로 들어가 학내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외대방에 입장하

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학교와 같이 두 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통신문화는 캠퍼스간의 간격을 어느정도 좁힐 수 있는 점에서 PC통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례로 올해부터 하부재 시험으로 인해 전

공을 선택해야만 하는 최일원(상경계열 II·미아산)군은 같은 과의 경우 캠퍼스와 광개야이 교수님이 같이 때마다 통신을 통해 서로와 원인 학생들이 만나면서 정보문제도 통신을 통해 간단히 해결하고 있다. 통신의 이용영역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한 이문재교과의 경우 광개야이 교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각 나리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과마다 가지고 있는 민족총이나 노

성을 서로 배우기도 한다.

'이번 세민전 때 꿈과 같은 것을 계기로 사용

캠퍼스 동일어와 친구들에게 춤을 가르쳐 줬다'라는 이승규(서학·독어 1)양은 통신의

유용성에 대해 주장한다.

홍연경 기자

공연이야기 - 달자꽃 피면

"80년 광주는 우리에게 처참함이라기보다 하나의 계기였다"



이 연극은 한 미국인부가 바리본 80년 광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의 언극이 그대 가슴에 친세벽 기우는 술잔 옆 죽순으로 떠나"

광주 민주화운동의 근본정신으로부터 통일을 향한 지난 한 노력의 예술적 승화를 꿈꾸며 80년 광주의 얘기가 다른 연극 한 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극단 '짓계 21'의 '날지 꽂 피면'이 그것이다.

이야기는 선교사 자격으로 80년 광주의 현장을 목격한 복터 목사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복터 목사는 기억하는 4명(최시라, 정미순, 화순태, 송기태)은 바로 80년 광주 당시

길죽한 날도의 웃음과 미당국 무대극의 진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연극은 80년 광주 그 처참함 속에서도 꽃들이 살아 숨쉬는, 죽음까지도 웃음으로 승화 시킨 인간애가 담보인다. 또한 단순히 사람의 '세상살이'로 그치지 않고 역사비로 세우기의 시각에서 비라보는 진정한 광주의 통일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극단 '현경'과 대교재 '노동당'에서 조연출을 맡았던 연출가 김갑설(미족족 위원회 사무국장)씨의 뛰어난 연출과 이를 극으로 표현해내는 연기자들의 열기기가 모여 연극의 감동을 전해줄 작품이다.

오는 12월 1일(일)까지 대학로 '오늘 소극장'에서 열린다.

서운경 기자

시 목록이 뒤에서 깊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고 이, 괴부, 정신박약자, 헌녀 등의 신분으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으며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을 먼저 배운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생은 80년 광주를 만난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부상자들과 사상자를 돌보는 일, 현 할하는 일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광주행동의 또 다른 힘이 된다. 사회를 적극화하고 광주행동의 입장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드디어 사회에서 뛰어들어 벌어지는 주제로 나선 것이다. 진학했던 80년을 마친 이들의 삶 또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는 광주의 아픔을 담고 소외받던 계층에서 벗어나 담당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살아간다. 이들에 80년 광주는 민족의 아픔이 아니라 탈피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길죽한 날도의 웃음과 미당국 무대극의 진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연극은 80년 광주 그 처참함 속에서도 꽃들이 살아 숨쉬는, 죽음까지도 웃음으로 승화 시킨 인간애가 담보인다. 또한 단순히 사람의 '세상살이'로 그치지 않고 역사비로 세우기의 시각에서 비라보는 진정한 광주의 통일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극단 '현경'과 대교재 '노동당'에서 조연출을 맡았던 연출가 김갑설(미족족 위원회 사무국장)씨의 뛰어난 연출과 이를 극으로 표현해내는 연기자들의 열기기가 모여 연극의 감동을 전해줄 작품이다.

오는 12월 1일(일)까지 대학로 '오늘 소극장'에서 열린다.

서운경 기자

외대따라잡기

(7) 민주광장·해방광장

용인캠퍼스 학생이라도 학내에 민주광장이나 해방광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광장은 학생회관 앞에 있는 마당을 지칭하고 해방광장은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버린 어려운 앞 마당의 이름이다. 해방광장은 대학진입 건설되면서부터 불러진 이름으로 2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 두 곳은 학내 집회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광장으로서 학내 학생들의 진정한 민주와 독립적인 위치 '해방'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

문부부

21세기 소재산업의 리더, LG금속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순도 99.99%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작은 땀방울이 이 사회의 풍요를
띠면 반드시 그게 기쁨이겠지요"

"삶의 보람을 아는 우리들 가슴속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입니다"

순도 99.99%를 향해 100%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의 얼굴입니다.

미래 산업사회를 힘써 펼쳐갈 소재산업 -

생활·산업용 금, 은, 동에서 첨단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LG금속의 사람들은 비록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중요성을 떠받치고 있다는
공식으로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99.99%를 위로 100%의 열정과 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엔의 기쁨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입니다.

LG금속가공사업부
강원광장
이 우 행

LG금속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철재련 연간 22만 5천톤의 99.99% 철금속을
비롯하여 금, 은 등 10여종의 비철
금속류에 황산, 무수화산, 무수화산, 도금화물 및
전자공업용 고온도 환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속가공 고급형의 풋볼리드, 스팀리스 퍼스트 및
무수산 등 각종 금속 및 금속과 같은
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소재 최초의 희토류화물, 고순도금속, 희토류화석,
후마트로드 등 최첨단 소재생산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계개별
한 등 훈

LG금속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시종일관의 정신을 발휘하여...

현 시회는 "길이미디어 시

대"라고 할 정도로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중요
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과 영상'을 전
달하는 '방송'이 이런 매체는 매우 중요하다.

1981년 9월, 이곳 원산에서 FBS 외대용인 방송국의 이름이 되어온 FBS 외대용인 방송국은 1990년 독자적인 방송국 케이블 선을 설치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하던 때보다 활발 상황이 좋아졌으며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해 방송에 출연하는 종은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정착해 기회를 잡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98년도 24회 FBS 텔레비전 방송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밀거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외
대인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따뜻한 애정과 날카로운 비판이 공존했으면 한다. 그럼 외대인의 관심이 우리 방송국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정지혁

<서학·독어 2, FBS 실무국장>

문화단신

(금) · 23일(토)~24일(일) 대학원 6008호에서 열린 프랑스 영화제는 누벨바그과 누벨이미주로 대표되는 장뤽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글로드 사브를 감독의 영광을 상영하기도 했다.

용인

외비거리 정기 연주회

봉기타 등이리 외비거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비거리에서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2회 차례로 열리는 첫 번째 해설과 함께 20주년을 기념해 제 4회 페르시아 종합예술제가 열린다. 대강당과 소강당을 오가며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2회 차례로 열리는 첫 번째 해설과 함께 20주년을 기념해 제 4회 페르시아 종합예술제가 열린다. '양단지를 타고 떠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해설과 함께 우리의 절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고사'를 시작으로 이어나온 어려운 어려운 이름이다. 해방광장은 주차장이 되어 버린 어려운 앞 마당의 이름이다. 해방광장은 대학진입 건설되면서부터 불러진 이름으로 2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어려운 학생회관의 해방광장으로부터 민주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연 대와 인문, 어문대학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고 지금은 80년대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부정을 하는 등 80년대 학내의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88년 학생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민주광장이 학생회관 앞에 자리리를 잡을수록 어려운 중심이

연 대항쟁 여학생 성추행사건 고발

가해자여 입을 열어라

여대생 피해자 일곱명 경찰청장등 고발

연대항쟁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중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박특경·경찰청·진안 경찰관들을 투고 위력에 의한 행위 등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문00(22·그대4년)씨 등 여대생 7명은 지난 21일(토) 오전 서울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병방이 8월 20일 연대에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박특경·경찰청·진안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에 의해 성적 인권침해를 행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진안 경찰은 물론 이를 목인 한 경찰 책임자 등 성추행 공범자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단대학생회 선거 윤곽 드러나

서울캠퍼스의 사방대·상경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와 용인캠퍼스의 모든 단과대들이 학생회장 선거를 치렀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총학회회장 선거일과 같이 20(수)·21(목)일에 선거를 치뤘고, 생활협동조합 회장 선거는 21(목)·22(금)일 양일간 선거를 치렀다. 대부분 단선이며 단

지 등이거나 연합회만이 경선이 불어 기호 1번 한현호(자연·물리 3) 군이 당선됐다. 모든 후보들이 총 회의 '참여와 단결' 학생회장으로 기자로 일색을 이루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서대의 경우 지난 14 일(화) 투표를 하기도 했으며 현재 단독출마상태이다. 과대생회장과 함께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단독출마상태이다. 과대생회장 선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점차 97년도 학생회의 심이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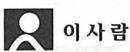
(용인)

당 선 자		투표율 (%)	찬성율 (%)
인 문 대	송 출(철학 2)	64.3	86.2
서양학대	김 창 섭(미래아이 3)	35.8	85.8
동양학대	강 풍 풍(마이어 3)	46.2	84.9
경 성 대	김 대 성(무역 4)	48.6	88.3
동국대	설 성(부미아이 3)	59.0	83.4
자 연 대	강 상(교화 3)	59.9	82.6
공 대	박 중 태(제이어케 2)	46.2	84.9
동 연 대	한 현 호(자연·물리 3)	75.8	74.2
총 이 학	함성원(화학·시민아이 3), 박신우(동구·플랜드 2)	48.3	85.9
생 협	채 균 수(서화·불이 3)	27	92

(서울)

당 선자		투표율 (%)	찬성율 (%)
법 대	김동희(법학 3)	52.42	80
동양학대	이현숙(중국 3)	47.8	87.71
경체학대	강상현(신방 3)	56.8	84.1
동아리연합회	이정환(동문제작구), 변혜립(A.L.A.)	65.4	81.3
사 법 대	25.26일 후보등록, 12월 2·3일 선거		
상 경 대	27.28일 선거, 오승훈(경영 3) 단독입후보		

□본교 노조 수석 부위원장 김창호씨를 만나



‘단일노조 건설하여 대학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올해 말까지 대학단위 노조를 조건부 협약시키고 단일노조로 이를 알기로 바랐다.” 용인 캠퍼스 학생회에 일하고 있는 김 창호(50)씨는 말한다.

“도권은 현 22개대학이 상 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터지여보니 많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단일 노조가 미진한 상태여요. 현재 본교와 한양대, 두 곳이 조건부 협약, 두 곳이 조건부 협약을 했을 뿐입니다.” 본교에서 대

하는 단일노조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단일노조의 단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풀든 걸과는 같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한 방침입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우선, 대학원과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점과 가지 고 있는 시립학교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교수, 직원이 동참하여 민주적 총장을 선출하는 것도 그 개선책 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대학원과 대학교원과 학교원과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점과 가지 고 있는 시립학교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원과 대학교원과 학교원과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점과 가지 고 있는 시립학교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립대학들은 여전히 등록금으로 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대선 제3당이 교육재정을 꾹꾹이 푸시려 할 것입니다. 총장뿐만 아니라 교수나 직원들이 대선에 의해 임명되는 것은 능동적인 대학방침을 위해서선 허용되는 채사입니다.” 또한 그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임된 것 무척 반기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학원과 대학교원과 학교원과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점과 가지 고 있는 시립학교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대학 선정과 관련하여 재단에서도 학교측에 꼬집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과 대학교원과 학교원과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점과 가지 고 있는 시립학교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본교가 87년에 노조가 결성된 이후로 5년째 내민주노조화를 위한 협력에서 차운은 길은 하나된 목소리인 단일 노조를 통해 관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교가 87년에 노조가 결성된 이후로 5년째 내민주노조화를 위한 협력에서 차운은 길은 하

나된 목소리인 단일 노조를 통해 관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교가 87년에 노조가 결

성장학금 신청자 접수 시작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